

# 19-171 to 19-174: 축복가정과 하나님의 날

hdhstudy.com/1968/19-171-to-19-174-%ec%b6%95%eb%b3%b5%ea%b0%80%ec%a0%95%ea%b3%bc-%ed%95%98%eb%82%

축복가정과 하나님의 날

1968.01.01 (월), 한국 전본부교회

19-171

축복가정과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은 있으나 아직 하나님의 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천지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삼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월 초하룻날인 오늘을 하나님의 날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171

축복가정의 역할

1967년은 선생님에게는 21년노정이 종결되는 해였고, 여러분에게는 7년고비를 넘기는 마지막 해였습니다.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볼 때 금년 2월에 430쌍을 축복하여 주면 축복가정이 662가정이 됩니다. 36가정, 72가정, 124가정, 금년에 430가정, 그리고 기성가정 98가정을 합하면 760가정이 됩니다.

666수는 사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수는 사탄세계의 절대적인 방패수인데 이것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수 이상에 해당하는 축복가정을 냈습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가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정을 통하여, 즉 아담과 해와의 가정을 통하여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침범한 흔적이 있어서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사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 부모의 자리를 탕감복귀하여 참부모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예수님은 독신으로 왔다가 독신으로 갔기 때문에 낙원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그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믿고, 또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죽으면 다 각각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서로 만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에 가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엄마 아빠의 심정이 좋겠어요? 그것이 천국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은 가정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에 낙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재림주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 해와, 곧 부부가 끌어들이기 때문에 부부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거짓 부모가 되었으므로 참부모가 나와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낙원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탄의 참소권내에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제3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는 축복받지 않으면 제 3이스라엘 백성이 못됩니다. 그렇지만 축복받는데 있어서는 조건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그 조건 때문에 40평생을 바쳤습니다. 일생을 그것 때문에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탄수인 666수 이상의 하늘가정을 찾아 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성가정을 포함하여 축복가정을 빨리 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430쌍을 축복해야 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1967년이 단기 4천3백년이므로 이것을 섭리적인 조건에 맞추어 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430년이 걸렸습니다. 즉 43수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 점이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43수를 중심삼고 7년 노정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맞아 떨어져서 새로운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통일교회가 가는 길은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 19-173

##### 통일족속을 편성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는 길은 앞을 확실히 알고 정성드리며 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통일교회 전도사들이 지방으로 전도를 나가면 그 지방의 기성교회 목사들이 미워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온다고 하면 전도사들의 가슴이 철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전면적인 전진이기에 때문에 기성교회를 살살이 뒤흔치는 작전을 할 것입니다.

7년 동안에 선생님은 통일족속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족속을 !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박씨, 김씨 등 온갖 성을 가진 사람이 다 모였지만 모조리 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족속이니 성이 같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 것이 오기 전에 거짓 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왜놈들이 한국에 와서 창씨 개명을 시킨 것입니다. 또 동방요배까지 강요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전부 이름이 닥 자입니다. 선생님은 생각하기를 한국 이름은 석 자니 하나님의 상징이요, 일본은 닥자니 땅수이기 때문에 해와 국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닥 자 우리는 석 자니까 합해서 일곱 자가 되니 일본과 한국은 인연이 있나 봅니다.

선생님이 일본 식구들에게 이름 중에서 한 자 빼고 세 자로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나라가 일본에게 동방요배했지만 이제는 일본이 우리 나라에게 서방요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족보를 갈아야 합니다. 성을 가는 것은 이단이지만 사탄의 이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수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1967년이 4천3백년에 딱 맞아 떨어졌겠습니까? 또 어떻게 통일교회의 7년노정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겠습니까?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 운세는 통일교회가 하는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로 우리 원리가 참 멋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좋다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없었습니다. 이제 통일교회가 그날을 만들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족속을 편성하여 이 통일족속으로 제 3이스라엘을 편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죽음의 길을 모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핍박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종족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은 부모, 형제, 처자를 정성을 다하여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날의 첫째가 부모의 날, 둘째가 자녀의 날, 세째가 만물의 날이었고, 네째가 오늘 선포하는 하나님의 날이고 맨 나중에 가정의 날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생겨진 결과로 앞으로 가정의 날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족속의 날, 국가의 날, 세계의 날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완전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 19-174

##### 복귀역사가 종결되려면 가정의 날까지 세워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고 가정의 날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120가정 이상을 전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고는 가정의 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중심삼고는 그런 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축복받은 부부는 절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멋진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종족이 편성 되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구성되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살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중심삼아 제3이스라엘 민족이 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의 순서로 세워지고 나중에 가정의 날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한꺼번에 다 세워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담 가정이 타락함으로 부모를 잃어 버렸고, 자녀도 잃어버렸고, 만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창조 이상의 사위기대를 완성할 가정을 잃

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까지 복귀하여야 복귀역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만을 설정하고 가정의 날은 보류했습니다. 가정의 날은 이제부터 7년노정이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구장들과 몇몇 가정들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날 선서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복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같은 날은 음식을 잘 차려 잔치를 해야 합니다. 사흘쯤 노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 무용단이 있었으면 춤도 추고 할 텐데 미국에 가고 없어서 서운합니다. 상오 3시에 예복을 입고 식을 할 것입니다.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이런 날들은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날들입니다. 이 날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심정을 걸어 놓고 전부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탕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